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전에 독일인들을 만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필자는 통일을 이룬 독일인들에게 통일에 가장 기여했던 인물들을 열거한다면 누구이겠는가라고 물었다.

독일인들의 대부분은 고르바초프와 콜 총리를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꼭 함께 거론하는 인물이 있다. 그것은 부시(아버지)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통해 서독을 경제 강국으로 부상시켰다. 서독은 '나토'라는 안보 우산 속에서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미국의 강력한 뒷받침을 통해 얻게 된 정치·경제적 자신감은 반세기 후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통

이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를

한 탈냉전 질서를 재편하였다는 데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임박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난관은 영국·프랑스·소련 등 전승국들의 반대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인 1989년 12월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몰타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지하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직후 이어진 나토 정상회담에서 독일 통일이 민족 자결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이 유럽의 안정을 위해 평화롭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1990년 2월 부시 대통령은 콜 수상을 미국으로 초청해(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독일 통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대해 가장 반대했던 대처 영국 수상을 설득하는 임무를 자임하였다.

미국은 공산권 붕괴의 큰 시대적 흐름을 읽었고 하나의 독일이 세계 평화와 유럽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980년대 말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세상 지금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절감하게 된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는 다르다.

하지만 강대국의 역할,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 도전을 헤쳐 나가는 통찰력과 상상력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1980년대 말 전개되었던 탈냉전의 종지부를 찍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다른 이념과 체제, 전쟁과 대결의 흐름을 평화와 공존, 화해와 협력이라는 흐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소명에 부합했던 회담이 이번 정상회담일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던 회담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바로 문 앞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못지않게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은 곧 있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다.

부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만나 독일 통일에 대해 나누었던 진지한 대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이루게 될 대화의 내용이 주목된다. 아직 모든 것을 낙관하기에는 이르지만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전 북미 간 접촉,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 개최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장소가 판문점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지원으로 독일이 부강하게 되었듯이, 6.25 전쟁 이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의 역할이 컸다. 미국과의 동맹으로 한반도 안보가 뒷받침되고,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대한민국의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오랜 정전 체제를 끝내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면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문 앞에 서있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부시 대통령과 콜 총리는 서로를 '나의 친구'로 불렀다. 두 정상 간의 신뢰는 독일 통일을 이뤘다. 반세기 넘게 역사와 가치를 공유해 온 한국과 미국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의 친구, 나의 민족이 한 자리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장면을 기대한다. 그래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땅, 또 다시 허나 되는 공동 번영의 발원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종교칼럼



장 형 규  
원불교 사무국장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을 지녀야 합니다. 여유로움을 지닌 깊은 호수를 마음 한 칸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박한 마음으로는 큰일을 헤쳐 나가기 어렵습니다.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일이 없을 때는 일 있을 때의 준비를 해야 갈팡질팡을 면할 수 있고, 일이 있을 때는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져야 판국에 얽매임이 없게 됩니다.

즉 여유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준비하는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번다한 일을 짓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몇 번 쳐다보며 살아가는 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주변의 소식들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살아가는 인생의 슬기로운입니다. 깊은 호수는 작은 물결이 하나가 호수위로 떨어져도 큰 파장없이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동행은 깊은 지혜를 뒤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묘한 것이어서 열게 생각하면 열은 지혜밖에 솟아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면 깊은 지혜가 솟아나 원대한 지견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세상만사란 그럴 듯하면서도 다르고, 다를 듯하면서도 그럴 듯하여, 좁잡을 수 없는 일이 도처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깊이 사고해야 합니다. 곧 앞날에 있을 일까지 미리 잘 따져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파스칼이 말하길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존재는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어찌할고 어찌할고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서는 사람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해주는 만 장작 그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1시간 사색하면 1시간 지혜의 힘이 쌓이는 것이고, 2시간 사색하면 2시간 지혜의 힘이 쌓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덕(德)을 쌓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덕(德)중에서도 가장 큰 덕은 남모르게 행하는 음덕입니다. 그와 반대로 남모르게 해하는 음해는 가장 큰 해를 받게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면 오고, 오면 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매년 선행을 이어가는 '일 굴 없는 천사'가 어느 곳이든지 선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행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마음에 선행심을 발하게 해주고 차가운 사회에 따뜻한 난로가 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자세

히 살펴보면 필연이든, 우연이든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이웃이 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쌓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은혜를 갚는 보은의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치를 안다면 내가 덕을 베풀었다는 상이 남지 않고, 진정 해야 할 일을 했 다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 오히려 큰 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하여 물질 문명이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 을 사용하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은 원불교 열린 날이었고 5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 깊은 5월을 맞아 안으로 마음의 호수를 갖추어 여유를 갖고, 깊은 사색을 통해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숨은 공덕을 많이 실천하여 참된 복덕을 짓고 이 세상을 밝히고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가정이나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5월인 만큼 위에서 말한 인생의 슬기로운 세가지 요법을 늘 유념해 만나는 일과 행하는 일마다 은혜가 나타나고 행복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기고



김 하 중  
변호사

역사의 신이 허락한 30분

북한은 김씨 일가의 권력 세습이 3대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씨가 김씨로만 바뀌었을 뿐 절대적 군주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들이 핵포기를 약속하며 3번째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미 김정은 재가를 위해 당장이라도 최첨단 군사력을 사용할 것 같았던 트럼프의 협구가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하는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입국한 외신기자들의 규모(34국 858명)만 보더라도 국제적 관심을 집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토록 명명 국가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하였으니 김정은도 그 약속을 쉽게 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6·15, 10·4 공동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그 모멘텀이 5월에 열리는 북미회담으로 이어져 그 성패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상회담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고 5월에 개최될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결실을 맺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일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된다면 서로 그물처럼 얽혀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화체제 구축은 중국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면에서 사드 철수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인접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의 각축 속에서 동서독 통일을 이루어 냈던 서독의 콜 수상과 같은 유연하고 지혜로운 외교적 전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일 북미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확립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릴 것이고,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은 최소한의 경계 수비로 전환될 것이고, 북부정지대는 문자 그대로 평화회담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서해의 NLL지역은

남북선이 공동 어로를 하게 되는 평화수역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부활할 것이고,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은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고 결국 정치 공동체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밟아나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 의존 관계 속에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꿈꾸는 정당이 있다면 '역사의 신'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여당은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야당은 이에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 세력도 평화통일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서독 시민당 정부가 수립한 '동방정책'을 기민당 정부가 이어받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동서독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점을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헌법 개정 문제도 남북간 및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반영하고 앞으로 전개될 평화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치밀한 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社說

‘5·18 명예훼손’ 전두환 이번엔 꼭 단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과 관련해 또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됐다. 만시지탄이 지만 사법귀정을 기대한다.

광주지검은 어제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겼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직접적인 기소 사유는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보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소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 또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물론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는 두 차례 소환 통보도 무시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2월 국방부에 이어 이번에 검찰까지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공인한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에 대해 5·18의 원죄를 몰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로 그는 5·18과 관련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됐다. 1995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구속됐지만 총기 발사 명령자 등 5·18의 핵심 진실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이 5·18 진실 규명과 전 전 대통령 단죄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그런 만큼 검찰에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떠나 헬기 사격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법원은 그에 따른 단죄를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단죄는 과거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5·18 역사 왜곡이 고치지 않는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폭 축소된 민간공원 개발안 끝까지 지켜라

광주시가 도시 공원 개발 면적을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원·녹지의 보존을 요구해 왔던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데다 개발 면적을 10%로 줄여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광주시는 민간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간공원 특례사업(1·2단계) 대상인 25개 공원 가운데 15개는 매입하며, 10개 공원은 민간 개발에 맡길 계획이다. 이중 1단계 민간 개발 공원은 4곳이며, 이 사업들은 지난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상태에서 개발 면적 25% 내외를 놓고 협상 중이다.

종합계획의 핵심 격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1단계의 4곳을 제외한 중앙·일곡·중외·송정·신흥·운암산 등 6개 공원이며, 이들 사업 대상자들

비공원시설 면적 즉 개발 면적을 1단계의 25%에서 10% 미만으로 크게 줄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개발 대상도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1단계 사업에서 제안됐던 4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차단함과 동시에 20층 이하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이윤 위주의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례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개발 대신 시가 매입하기로 한 15개 공원에 대한 예산(1600억 원)이 당초 예상보다 3배가량 많아진 것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민선 7기에서도 민간공원 10% 개발안이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한반도의 역사는 2018년 4월 27일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나란히 서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던 순간, 68년 만에 이어 온 가나긴 전쟁은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 위기를 부추겨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에 기생하던 정치 세력도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마침내 평화의 봄이 왔다.

평화가 땅이라면 경제는 그 땅에서 피는 꽃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 경제지도

이 형성되어 큰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린다. 재선거와 노벨상을 위해 성공이 꼭 필요한 트럼프, 체제 보장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회담의 성공이 간절했던 김정은. 일단 회담 일자와 장소가 결정되면 북핵 문제는 타결됐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평화의 봄바람이 부는 한반도. 국제적인 광주 송정역에서 열차를 타고 북한·중국·러시아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대륙 횡단의 꿈이 이뤄질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유재관 편집·부장·부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